

신년사 (DRB동일)

DRB동일 구성원 여러분! 2023년 癸卯年(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변화 무쌍했던 시장환경 속에서도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에서 탈피해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해에는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들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미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며, 기준금리를 급격한 속도로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한편, 한미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을 축소하고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역시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DRB동일 역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보다는 다가올 신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러한 우려들을 과감하게 떨쳐 내었으면 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우리 DRB동일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내는 특유의 도전정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일구어 낸 것처럼 현재의 위기는 또다른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던 2022년 한 해였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구성원 여러분! 올해 역시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하고 경제지표도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국내와 같이 무한 경쟁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각오로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인 대비와 도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는 말에 주저하거나 멈추기 보다는 위기 속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몇가지 실천과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생산과 경영 효율을 높여 핵심 사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튼튼하게 구축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의 성장이 이어질 때 인접 시장으로의 확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해에는 구성원 간에 소통을 활발히 하고 일하기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될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고 회사 생활도 즐거워 질 것입니다.

셋째, ESG 경영 활동 강화입니다.

이제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 시장과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협력회사와의 상생 경영, 인재 중심 경영, 지역사회 공헌 활동, 윤리·준법경영을 내재화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ESG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법/윤리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소중히 여기며, 이를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바람직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보여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가내에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DRB동일 대표이사 류영식